

조선대 옛 경영진의 공세

전호중 총장 등 교수 4명 논문 표절 의혹 주장 '흠집 내기'

조선대 "억지 주장" 반박

조선대에 입시이사 재파견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경영복귀를 시도하는 옛 경영진이 현 총장 등 주요 교수 4명의 논문 이중게재 의혹 등을 주장하며 '흠집 내기'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다.

반면 조선대는 옛 경영진의 주장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해당 교수의 수돗물을 공급받게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조선대는 반박문을 내고 '조선대 동창회'는 박성섭·정애리씨를 추종하는 모임으로 현 조선대와는 관련이 없는 단체이며, 그들이 주장하는 학위 논문의 이중 게재 등은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조선대는 특히 표절과 이중게재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이중게재의 기준을 최근 5년 이

내 논문으로 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14~15년전 논문을 들고 나온 점을 보면, 현 경영진을 흠집내고 입시이사로 복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조선대동창회'가 문제 삼은 논문들은 대부분 10여년 전 학술지 등에 게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조선대 동창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의 유일한 동창회는 지난 1949년 설립된 회원이 20만명에 달하며 창립 6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조선대 동창회'이며, 현 경영진의 논문 문제를 거론한 '조선대 동창회'는 고(故) 박철웅 총장을 추종하는 극소수 인물

들이 만든 단체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선대 관계자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입시이사 재파견 결정 이후, 옛 경영진들이 학교 복귀를 위한 노력과 함께 학위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대는 지난 1988년 118일간 이어진 농성 등 고대 민주화 투쟁으로 고(故) 박철웅 전 총장 일가가 추락한 뒤 옛 경영진이 물러난 이후, 지난 해 6월 말까지 입시이사 체제로 유지되다 지난해 조선대 구성원들의 강력한 반발 속에 입시이사 재파견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이와 함께 '조선대 동창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의 유일한 동창회는 지난 1949년 설립된 회원이 20만명에 달하며 창립 6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조선대 동창회'이며, 현 경영진의 논문 문제를 거론한 '조선대 동창회'는 고(故) 박철웅 총장을 추종하는 극소수 인물들이 만든 단체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선대 관계자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입시이사 재파견 결정 이후, 옛 경영진들이 학교 복귀를 위한 노력과 함께 학위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대는 지난 1988년 118일간 이어진 농성 등 고대 민주화 투쟁으로 고(故) 박철웅 전 총장 일가가 추락한 뒤 옛 경영진이 물러난 이후, 지난 해 6월 말까지 입시이사 체제로 유지되다 지난해 조선대 구성원들의 강력한 반발 속에 입시이사 재파견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광주 30.3도

한여름 날씨

5월 상순 2번째 기록

6일 광주의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어서는 등 광주·전남지역 대부분이 올 들어 가장 높은 낮 최고기온을 기록하면서 여름 날씨를 보였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6일 광주의 낮 최고기온은 기상관측 이래 5월 상순 기온으로는 2번째로 높은 30.3도를 기록했으며 ▲순천 30.2도 ▲해남 26.5도 ▲안도 26.4도 ▲장흥 26.2도 ▲고흥 26.2도 ▲목포 24.8도 등 평년보다 2~10도 높은 고온현상을 보였다.

기상청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이 동서고압대의 영향을 받고 있어 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다"며 "이 같은 여름날씨는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36분
해질 19시 23분

달돋이 17시 44분
달질 03시 59분

지역	날씨	최고/최저
광주	맑음	13/29°C
목포	맑음	12/24°C
여수	맑음	15/23°C
안도	맑음	13/27°C
구례	맑음	9/30°C
해남	맑음	10/27°C
장흥	맑음	10/28°C
고흥	맑음	9/29°C
순천	맑음	12/28°C
영광	맑음	9/26°C
진도	맑음	11/27°C
전주	맑음	12/29°C
남원	맑음	9/30°C
속초	맑음	12/19°C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서	0.5~0.5m	목포 00:44	06:00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여수 07:38	01:36

◇주간날씨

날짜	8(금)	9(토)	10(일)	11(월)	12(화)	13(수)
날씨						
최저/최고	12/29	14/30	15/29	16/26	16/24	15/26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우물물 먹던 광주 광산구 용봉마을

나주시 수돗물 먹는다

자치단체간 첫 협약

광주시내에 있으면서도 그동안 수돗물을 혜택을 받지 못했던 광산구 용봉마을 80여 세대 주민들이 나주시의 수돗물을 공급받게 될 전망이다.

시는 최근 나주시와 이 같은 내용의 협약을 맺고, 광주시수도급수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 조례로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원·정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광주시내 마을이 주변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광주시에 모두 326개 자연마을(1만8천206가구) 중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곳은 216개 마을(1만405가구)로, 110개 마을(4천801세대)이 지금까지도 수돗물 대신 우물물 등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선대 동창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의 유일한 동창회는 지난 1949년 설립된 회원이 20만명에 달하며 창립 6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조선대 동창회'이며, 현 경영진의 논문 문제를 거론한 '조선대 동창회'는 고(故) 박철웅 총장을 추종하는 극소수 인물들이 만든 단체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대병원 고객 만족도

전국 국립대 병원 중 1위

전남대학교병원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국립대병원 중 1위를 차지했다.

전남대병원은 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실시한 고객만족도 평가조사에서 평균 94.8점을 얻어 전국 국립대병원 중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전남대병원은 학동 전남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 환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만족지수 분야 전반적 만족 94.0점, 사회적 만족 95.8점 ▲품질지수 분야 서비스내용 품질 95.1점, 서비스과정 품질 94.1점 등을 받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신세계 "희망동네 만들어요" 광주신세계 직원들이 '가정의 달'을 맞아 6일 광주시 서구 농성동 주민센터 앞 광장에서 '희망동네 만들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직원들은 홀로 사는 노인과 저소득층 200여명에게 자장면과 생활필수품을 전달했으며 의료지원, 이·미용 봉사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최한혜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복구에 공립 특수학교 설립된다

34학급·250명 규모...예산확보가 관건

광주에 공립(公立) 특수학교 설립이 추진된다. 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신식 시설을 갖춘 공립 특수학교를 오는 2012년 개교 목표로 설립하기로 했다.

북구지역에 들어설 것으로 알려진 이 특수학교는 34학급 250여명 규모로 사업비 25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유치원과 초·중·고등부, 전공과(초급대학 수준)를 설치하고 정신장애와 정서장애 학생 위주로 운영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최근 투·융자 심사를 마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인가를 신청했으며 다음 달 실사를 거쳐 하반기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에다 수백억 원이 넘는 사업비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시교육청은 최근 투·융자 심사를 마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인가를 신청했으며 다음 달 실사를 거쳐 하반기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에다 수백억 원이 넘는 사업비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초·중·고 '교과서 대여제' 도입

초·중·고교 교과서가 참고서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풍부한 내용과 외형의 '선진형'으로 개편되고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빌려주는 '교과서 대여제'가 도입되는 등 교과서 체계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과서 질 제고 방안을 마련해 최근 내부 검토를 마쳤으며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6~7월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교과서 대여제란 말 그대로 교육청이나 학교가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학생들은 해당 학년이면 교과서를 빌려야 한다.

현재 초·중·고교는 의무교육과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교교의 경우에만 학생들이 직접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교과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교과서 가격 상한제'의 대안이자 학교 자율화, 다양화 방안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향뉴스

5·18 어린이 체험학습관 게임기 철거

국립 5·18 민주묘지관리소 내 5·18 어린이 체험학습관의 터치스크린 게임기가 철거된다.

국립 5·18 민주묘지관리소는 '황당한 5·18 어린이 체험학습관' 보도 <본보 1일자 6면>와 관련, 게임 참가 어린이들에게 국군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터치스크린 게임기를 7일 철거한다고 밝혔다.

민주묘지관리소는 그러나 문제의 게임에 '진압군을 죽여라'라는 안내 음성엔 애초에 삼입돼 있지 않았으며, 다만 '악당을 물리치자'라는 자막과 함께 '살려 주세요'라는 음성만 삼입돼 있었다고 밝혔다.

민주묘지관리소는 또 어린이 체험관이 개인관람을 제한해 '반쪽짜리 체험학습관'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대정원이 60명으로 수용인원이 다할 경우 예약단체를 우선 수용했을 뿐 개인입장을 제한한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관리소는 준비물이 없어 체험학습이 불가능하다는 본보 보도에 대해 체험관 내에 관화지·가위 등 체험학습에 필요한 기본적 준비물은 모두 준비돼 있으나 단체 관람의 경우에는 준비물을 가져오도록 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문의/예약
0821 515-7600

우리나라 다시보기 제주도 재발견

세계 자연 유산에 지정된 아름다운 섬 제주도
날고, 노우고, 즐길 수 있는 그 곳
한국의 숨겨진 아름다움, 섬 제주도로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항공+항공 249,000원

- ▶ 제주도 5박 6일 여행 패키지 (항공 포함)
- ▶ 제주도 5박 6일 여행 패키지 (항공 포함)
- ▶ 제주도 5박 6일 여행 패키지 (항공 포함)

선박+선박 128,000원

- ▶ 제주도 5박 6일 여행 패키지 (선박 포함)
- ▶ 제주도 5박 6일 여행 패키지 (선박 포함)
- ▶ 제주도 5박 6일 여행 패키지 (선박 포함)

"5월"

전일정 광주출발 도/착기준

▶ 제주도 5박 6일 여행 패키지 (항공 포함)

▶ 제주도 5박 6일 여행 패키지 (항공 포함)

▶ 제주도 5박 6일 여행 패키지 (항공 포함)

▶ 제주도 5박 6일 여행 패키지 (선박 포함)

▶ 제주도 5박 6일 여행 패키지 (선박 포함)

▶ 제주도 5박 6일 여행 패키지 (선박 포함)

▶ 제주도 5박 6일 여행 패키지 (항공 포함)

▶ 제주도 5박 6일 여행 패키지 (항공 포함)

▶ 제주도 5박 6일 여행 패키지 (항공 포함)